

프로폴리스의 위력

-지남호이어서-

두리원 대 표 김 해 롱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8. 성인병과 프로폴리스

1. 고혈압

식물이 진액물질을 분비시키는 데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다. 식물의 속 피질에 상처를 입었을 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이 수액의 원활한 공급이다. 뿌리에서 흡입되는 수분을 끝에 있는 입사귀까지 공급시키려고 하면 식물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다발 속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찌꺼기도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흡수한 영양분의 점액도를 낮추는 작용이 있을 때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식물의 작용을 인체에 적용시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박멸 및 억제작용은 인체에 그대로 적용되고, 수액의 원활한 공급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과 동일하다.

보통 성인의 최고 혈압이 120mmHg이고, 최저가 80mmHg이 될 때 정상치라고 한다. 최고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이 분출하는 힘의 압력을 최고혈압이라 하고, 심장이 수축될 때의 힘을 최저혈압이라고 한다.

심장이 튼튼한 사람 가운데 혈압이 높은 사람 없고, 피가 깨끗한 사람 가운데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나쁜 사람은 없다.

혈액의 통로인 혈관이 나빠진다는 것은 좋은 혈액이 아니고, 혈액속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탄산가스(CO₂) 같은 독소가 많으면 혈액의 점액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하는 데 지장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생기게 되고, 혈압도 자연히 높아진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나쁘다는 뜻도 된다.

혈액의 점액도가 낮아지면 혈관벽에 붙어 있는 이물질까지 제거시켜 주는 작업까지 겸하게 되므로 근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잘되게 한다.

혈액순환이 잘되면 혈압강화제를 별도로 복용하지 않아도 혈압은 정상치로 돌아오게 되고, 심장도 좋아진다. 심장이 나빠져서 만성인 된 상태에서는 정상회복은 다소 어렵다.

중소업체의 K사장이 "목땀이 땀기고 빠진 증세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하고 문의해 왔다.

혈압을 물어보니 보토 150~160mmHg 정도라고 했다. 회식이 잦고, 사업관계로 신경이 쪼그라들었다니

안 좋아졌다고 했다.

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펴하고 기분이 안좋고, 때로는 맥이 빠진다고 했다. 프로폴리스에는 그러한 반응이 없어서 먹게 되었다. 3~4개월 뒤에는 혈압도 20~30mmHg이 떨어지고 기분도 아주 좋아져서 일의 능률도 높아졌다고 했다.

2. 심장병과 프로폴리스

나의 어머니는 40대부터 몸이 비대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으로는 육식을 너무 좋아하는 데 있었다고 여긴다. 저녁 식사 후 남은 고기가 있으면 주무시기 전에 그것을 마저 드셔야 할 정도로 육식을 좋아하셨다.(이 때 육류가 귀했음.) 그리고 비대할 수 있는 체형이었다. 얼굴이 둥글고, 목이 짧고, 다리가 짧으며 먹는대로 살이 찌는 체형이다.

나의 어머니는 얼굴이 둥글고, 목이 짧은데다 육식까지 좋아하셨으니, 여기에 살이 안찐다면 도리어 이상하다.

몸이 비대한지 10년이 경과하면 성인병은 거의 오게 된다. 다행히 시골에서 1차 식품을 먹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당뇨병은 오지 않았지만, 혈압은 높았다. 최고로 높을 때는 200mmHg까지 올라 갔다. 심장이 나빠 병원에 가서 X-Ray를 들고 인턴과 간호사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왼쪽 가슴에 달걀 크기의 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심장의 크기인데, 제 어머니의 심장은 밥그릇 크기로 비대해 있었다. 수축 능력이 없다 보니 보통 사람은 1분에 72번 뛰는 맥박이 어머니는 40~42번 밖에 뛰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서도 심장에 부담을 느껴 숨을 몰아 쉬어야 했고, 다리에는 쥐(경련)가 자주 일어났다. 주무시다가도 다리가 저려 오면, 누구든 한 사람은 일어나 주물러 드려야 했다.

약은 어떤 약이라도 심장에 부담을 주어 먹을 수 없었다. 감기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심장병에 먹는 작은 알약 구심(求心)도 먹으면 심장의 부담 때문에 복용할 수 없었다.

이때에 우리집 둘째 아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게 되었다. 부모의 불행을 자식에게까지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 농업경영에서 자연의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내 자신이 10년 앞서 이 공부를 하였더라면 어머니가 심장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나의 병도 10년 앞서 고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통에는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던 것은 병은 의사나 약이 고칠 수 있다는 개념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성인병은 발병하기 전에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병이고, 초기에는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병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완치라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큰 불편없이 생활하게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어머니의 병은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상태였다. 부작용이 적고 혈액순환이 잘되는 프로폴리스가 심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보통 사람의 3분의 1정도를 복용시켰다. 며칠 드신 뒤부터는 심장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리가 저리는 것이 없어져서 우리 부부는 마음 놓고 잘 수 있게 되었다. 100미터만 걸으셔도 숨이 가빠 하셨는데 몇 백미터 걸으셔도 거뜬하셨고, 2km가 넘는 교회를 걸어서 다니셨다. 2~3년 넘기기가 어렵게 보였던 어머니가 7년이나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교통이 불편한 시골이고, 의료보험이 없던 그 시기에 그만큼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폴리스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부산 양정에 사시는 젊은 회사원 한 분은 위장이 나빠서 프로폴리스를 먹었는데 프로폴리스를 먹고 나니 위장병만이 아니고, 간혹 심장에서 오던 압박감이 없어져 심장병까지 고치게 되었다면서 자기 회사에서 생산한 우산을 2개 들고 찾아온 적이 있다. 그의 몇 사람으로부터 심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수차 들었다. 이 사람들이 프로폴리스를 먹을 때 심장병을 의식하고 먹었던 사람들은 아니다.

술잎, 설탕, 물을 갖고 만든 술잎주가 심장에 좋다는 것은 먹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한다. 술잎보다 효과가 더 좋은 술잎의 진액(津液)도 프로폴리스에 들어 있는 물질이다.

혈액순환이 잘되면 『크로므』의 작용에 의해 심장은 자동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이 자연의학의 대가인 니씨 가르소 선생의 학설이다. 심장이 나빠서 혈액순환이 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혈관의 기능이 나빠지므로 혈액순환이 덜 된다는 것이 니씨의 학설이므로 이 학설을 적용시키면 프로폴리스가 심장에 좋다는 학설은 바로 나온다.

3. 당뇨

옛날에는 당뇨를 소갈병(消渴病)이라고 한 것은 “물을 많이 찾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길을 가다가 소변을 보았을 때, 개미가 모여들면 소갈병으로 진단한 것은 소변에 당(糖)의 배출이 많아서 개미가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80년도 초까지만 하여도 농촌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없었다. 있었다면 면내(面內)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집이거나 외출이 잦아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뇨병 환자가 있었지만, 일반 농민들에게는 당뇨병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골에도 당뇨병 환자가 많아진 것은 정백된 2차 식품을 선호하고부터 많아졌다.

흰쌀밥, 흰설탕, 육고기들은 모두 산성체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들이고, 이것을 장기간 먹게 되면 혈을 탁하게 만든다. 혈이 탁해지고, 몸이 비대해지면 당뇨병은 거의 오게 된다.

채소를 식사량의 3분의 1을 먹어 주거나 쌀의 눈이 붙어 있는 5분도 쌀을 가지고 주식으로 하면 당뇨는 결코 오지 않는다.

우리가 먹는 3대 열량식품 가운데 하나인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갑자기 흡수될 때 그것을 에너지(Energy)화 시키는 데는 췌장에서 분비시키는 인슐린(Insulin)의 양도 그만큼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이 적당히 분비될 때는 췌장에 무리가 없지만, 많은 양을 단시간에 배출시키려고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섬유질이 많은 현미식을 하면 그것이 에너지화되는 시간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조효소제인 비타민 B가 많아서 연소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산성체질이 되는 것도 막아준다. 혈이 약알칼리성으로 변하면 피가 맑게 되므로 당뇨병은 오지 않는다.

프로폴리스가 당뇨병에 로얄제리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영양학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피를 맑게 하는데서 오게 된다.

고등학교 교감 부인인 K 여사가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고 찾아왔다. “물을 많이 찾게 되고, 먹어도 허기가 생기고, 피로가 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혈당치가 200mg/dl까지 올라가서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웃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더니, 나이가 많은 의사는 “요사이 젊은 의사들은 약이나 주사를 너무 신봉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식이요법부터 먼저 시도해 보라고 했다. 그래도 되지 않을 때 주사를 맞아도 늦지 않다고 했다. 주사를 맞게 되면 평생 동안 매일 맞아야 하니, 신중을 기하라는 고마운 충고도 해주었다고 했다.

필자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 체중 감량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해 주었다. 프로폴리스를 복용한 지 5개월만에 혈당치는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주사를 맞지 않게 하여 준 의사분이 너무 고마워서 찾아가서 프로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의학잡지에도 프로폴리스가 소개된 바 있었다”는 말을 해 주시더라고 했다.



천안에서 2대에 걸쳐 양봉업에 종사하였고, 봉산요법(蜂産療法)에 대해 남다른 연구심을 갖고, 노력하였던 故 박창준 선생은 필자에게 “간경화에도 프로폴리스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만, 당뇨에도 5~6개월만 사용하면 거의 완치되므로 김선생님도 이 방면에 연구해 보십시오”하고 조언해 주었다. 그 분은 고령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다.

조도행 선생하면 양봉인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다. 일본 법정대학을 나오시고, 지금 연세가 만 80세이지만, 가평에서 직접 벌을 하시고, 오랫동안 한국 양봉협회와 양봉학회 고문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6.25 사변 이전 한양고등학교 생물교사로 계시면서 취미 삼아 하였던 양봉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고, 그 연륜 못지 않게 몇권의 양봉 서적도 출간하셨다. 지금도 양봉계지에 매월 원고지 40매 분량의 「꿀벌 할아버지 에세이」를 26회째 연재하고 계신다. 조선생님이 프로폴리스를 몰랐을 때는 “자연물질 중에서는 로얄제리가 최고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지병인 당뇨병을 프로폴리스로 고친 뒤에는 자연이 준 물질 중에는 프로폴리스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당뇨병에 1~2개월에 낫는 것은 거짓말이고, 5~6개월만 복용하면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신다.

필자도 조선생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양봉인들 가운데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이 로얄제리로서는 고치지 못해도, 프로폴리스로 당뇨병을 고쳤다. 프로폴리스가 당뇨에 좋아도 수년간 주사를 매일 맞고 있는 사람까지 고치는 것은 아니다. 소량으로 장기복용할 때는 당뇨병에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시켜 준다.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저항력 약화에서 오게 되는 합병증이다.

당뇨병은 합병증만 오지 않으면 그 병으로 인해 죽는 일은 없다.

4. 프로폴리스, 암에 효과가 있다.

1) 척추 동물은 암에 걸린다.

함은 현대의 난치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치의 병은 결코 아니다. 인간이 암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머리카락과 손톱뿐이다. 그 외의 부분은 어디나 암에 걸릴 수 있다.

암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몸에 부스럼이 생겨나듯이 하루 이틀에

발병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면역기능이 약해지면서 자가 독소에 의해 생겨나는 병이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세포의 생활 환경이 바뀌고 그것이 변조된 세포로 늘어나면서 조직적으로 확대되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할 때 암이 된다. 암 세포 20만개 이하일 때는 암이 발생하지 않고, 그 이상일 때 체내 저항력이 약화되면서 암이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암의 크기가 1cm 정도 되려고 하면 보통 8~10년이 경과되었을 때 그 정도의 크기다. 그러나 3cm 커지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는다.

우리 몸에 강한 항체를 갖고 있으면 암은 발생하지 않는다. 항체를 만드는 데는 임파구가 필요하다. 임파구는 척추동물에 한해서 있고, 무척추 동물에는 없다. 척추 동물이 전 동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이다. 이외의 동물들은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어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이용하여 방어력을 키운다. 이 방법을 잘 응용하고 있는 곤충이 꿀벌이다.

꿀벌이 나무의 진액물질을 갖고 와서 거기에 타액, 꽃가루, 밀랍을 첨가하여 효력을 극대화 시켜 놓은 것이 프로폴리스이다. 이것이 암에 대한 새로운 물질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2) 체험사례

초등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H씨는 암 중에서도 고치기 더 어렵다고 하는 치근암에 걸렸다. 암에 걸리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제를 복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분은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다. 큰 아들 되는 사람은 부산의대를 나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아버지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몸에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까지 죽게 되어 저항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니 방사선 치료는 받지 마십시오”라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대신 자연요법을 철저히 실천했다. 울무를 1/4 첨가시킨 현미식을 하였고, 녹즙도 마시면서 항암작용이 높은 어성초 효소제품도 복용하였다. 그리고 프로폴리스와 꽃가루도 열심히 드셨다. 1년간 드시고 나서는 암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혹시나 해서 1년간 더 복용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 효성여대의 K교수는 위암 수술 뒤에 체중 감소가 너무나 심

했다. 프로폴리스, 꽃가루, 현미식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는데, 1년이 지난 뒤에는 정상적으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의 이종 형수는 경부암에 걸렸는데 프로폴리스, 꽃가루, 현미식, 이 세가지 밖에 하지 않았는데 8개월만에 완치되었다.

3) 암에는 복합적인 방법이 필요

암은 식생활의 잘못으로 인해 혈액이 탁해지면서 그 속에 독소가 많아져서 약한 어느 부위에 가서 돌출되어 생겨나는 것이 암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요법이 아니고, 전신요법이 되어야 한다. 프로폴리스가 암에 좋다하여 한가지 방법만 권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다. 권할 것은

첫째, 현미식이다!

백미에 암균을 집중시키면 무한히 뺏어가지지만 현미식에 집중하였을 때는 사멸된다. 이것은 현미에 들어 있는 베타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암바이러스를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백미식이나 육식을 하고서는 어떤 약을 써도 암은 고치기 어렵게 된다.

둘째, 프로폴리스를 복용시켰다.

프로폴리스는 혈을 맑게 하면서 항암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암환자에게는 보통 사람의 양에 배로 복용시킨다. 지난 번에 논했지만 수술 바로 뒤에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셋째, 꽃가루를 복용시킨다.

체내 저항력을 길러주는 데는 꽃가루 이상의 좋은 물질이 없을 정도이다. 꽃가루는 저항력을 강화시켜주는 영양소 중에 최고의 영양소이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

넷째, 이 외에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도 첨가시켜 주어야 한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유근피(누룩나무 껍질)는 항암작용을 하면서도 피부를 열게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술 뒤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어성초는 설파민보다 효력이 더 뛰어나므로 어성초와 프로폴리스를 곁꿨을 때는 그 효력을 더 높일 수 있다.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해서 한가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

9. 백혈병과 암

1. 프로폴리스란 이런 것이다.

1) 의사면허 취소 당해도 좋다

이 글은 미조쿠찌 박사의 “프로폴리스란 이런 것이다”라는 강연문이 1992년 8월호 월간지 양봉계지에 기재되었던 것을 일부 삭제하고, 옮긴 글임을 밝힌다.

미조쿠찌 박사는 치과이사이지만, 학위는 내과 의사로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조쿠찌 박사는 프로폴리스를 직접 생산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직접 생산한 필자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도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지구상의 생물은 주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 없다. 그러나 벌만은 변화된 것 없이 살아 왔다. 4,000만년 전의 벌의 화석은 지금의 벌과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벌은 식물의 혜택을 잘 받아 왔기 때문에 진화할 필요성이 없었던 곤충이다. 내가 케이오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것이 1982년 여름이었다. 그 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체력은 극도로 쇠약해져 빈사 상태에 있었다. 환자가 의사에게 병이나 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이라도 하면 대단히 싫어한다. 나도 의사이지만, 의사가 의사에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욕을 얻어 먹기도 한다. 의사 사이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면 오죽하겠는가? 환자는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병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병원에서 저항하거나 퇴원하지 않는 한 항암제를 맞게 된다. 항암제 주사를 거듭 맞다보니 나의 머리카락은 전부 빠져서 중머리 같이 되었다. 어디 그것 뿐인가. 콧속에 있는 털까지 다 빠져서 무릎위에 떨어질 때 나의 모습은 내가 보아도 처량한 꼴이었다.

이제는 내 목숨도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담당의사는 ‘미조쿠찌 카즈에의 생명은 3개월 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나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시비를 걸게 되어 부득이 병원에서 일하게 퇴원하게 되었다.

퇴원하였을 때 프로폴리스를 권하는 사람이 있었다. 위기에 놓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일반인들보다 다량으로 복용하였다.

일본에서 암환자가 프로폴리스를 먹은 사람이 내가 제1호 환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이후 2,000개 이하로 감소되었던 백혈구 수치가 원래 수준인 7,000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8,000개로 올라서게 되고, 기력도 차차 회복되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 모두 빠져 버렸던 머리카락이 종전보다 더 새까맣게 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프로폴리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계속 복용하였다. 그 덕으로 나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나의 성격은 너무나 직선적이어서 앞뒤를 살피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할 때가 많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후회해본 적은 없다. 현대인들은 너무 약아서 뒤에 책임 추궁과 같은 해가 돌아올까 해서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고, 무언으로 내변할 때가 많다.

-다음호에 계속-